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 개최

군산시, 25일 초원사진관 일원서 30초 단편영화제·군산 굿즈 공모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 선사

군산시는 오는 25일,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주 촬영지인 초원사진관을 중심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군산을 대표하는 영화에서 축제 이름을 딴 것으로 시간여행마를 내 주민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골목 경계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올해 축제는 25일 오후 3시부터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과 프리마켓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리마켓에는 '8월의 크리스마스 군산 굿즈 공모전'에 참여한 작품들이 처음으로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 7시부터는 '8월의 크리스마스 30초 단편 영화제' 시상식이 진행된다. 시상식 외에 식전 공연과 축하 공연도 마련되어 있어,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30초 단편 영화제는 군산으로의 여행을



군산시는 오는 25일,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주 촬영지인 초원사진관을 중심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를 개최한다.

자극하는 작품을 주제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공모를 진행, 29일이 출품하였으며 그 중 3팀이 선정되었다. 상금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총 350만원이 지급되며 시상식이 끝난고 난 뒤에는 수상작을 상연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가 군산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즐길 수 있는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통오방색 대형부채 파빌리온 '눈길'

한국전통문화전당, 단선 모양 제작·설치... 그늘막·포토존 활용

전통오방색을 활용한 단선 모양의 대형부채 파빌리온이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에서 운영하는 전주공예품전시관에 설치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1일 전당에 따르면 전주공예품전시관 방문객들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리라는 뜻에서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 등 우리나라 전통 오방색(오방정색)을 활용한 단선 모양의 대형 부채를 파빌리온으로 제작·설치했다. 특히 전주공예품전시관에 설치된 부채 모양의 파빌리온은 방문객들에게 그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포토존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도영 원장은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주는 취지에서 부채 모양의 파빌리온을 설치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설치물을 통해 전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덕유산국립공원-전북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업무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 이경운)은 생태와 문화예술을 융합한 탐방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덕유산 탐방안내소 등 탐방 인프라를 활용하여 생태와 문화예술이 융합된 탐방서비스를 개발하여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ESG 경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탐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관광 상호 연구 및 공동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ESG 경영 등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를 위한 제반 사항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복, 꽃으로 피어나다' 전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9월 29일 까지 전당 1층 전주한복문화장작소 열람실에서 '한복, 꽃으로 피어나다'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버려지거나 한복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을 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작품을 주제로 한복 소재가 주는 독특한 한국적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꽃과 잎, 나비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문미연, 김혜경, 박승이, 박진희, 정진아, 조가비, 최양남, 최현영 등 8명의 공예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스승차마를 활용한

전북도립미술관,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사업 2년 연속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국립현대미술관 지원 사업인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지역 미술 기록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립미술관에 학예사를 파견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립미술관은 올해 사업 선정으로 2027년 개소 예정인 미술아카이브연구소(가칭) 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도립미술관에 따르면 2023년 1차 지원 사업을 통해 자료 수집의 방향을 설정하고 故 문복철 작가 및 전북민족미술협회의 기록물

"추석 연휴 '태권스테이' 어때요?"

태권도진흥재단, 9월 태권스테이 판매... 태권도원서 체험·숙박 등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이 기획한 태권도 관광 상품인 태권스테이가 9월 분 판매를 시작했다. 태권스테이는 태권도를 활용한 스포츠 관광 상품으로 9월 예매 가능일자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왔다. 9월에는 13일과 14일, 14일과 15일 각 1박2일 프로그램으로 1인 5만 8천원*에 참가할 수 있다. 5만 8천원은 참가자들이 태권도원 내에서 각종 체험과 숙박 및 식사, 가족사진 촬영, 모노레일 탑승, 태권도원 상설공연 관람, 국립태권도박물관 견학 등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60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전북투어패스권까지 포함한 비용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9월 태권스테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가하는 기존 진행 방식에서 벗어나, 1일차 저녁 시간을 활용해 '엄마'와 '아빠'가 별도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자녀들은 희망에 따라 엄마 또는 아빠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다. '엄마 프로그램은 '조각 조맹 등 만들기'로 콘텐츠 진행 감사와 함께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 아빠 프로그램은 '태권 레크리에이션'으로 다양한 퀴즈와 작은 운동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와 다양한 의견을 받아 향후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이사장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9월 태권스테이는 연휴의 시작을 가족과 함께 태권도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엄마와 아빠에게는 어린 시절 태권도장의 추억을, 자녀들에게는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휴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인스타그램 태권스테이 검색 화면

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고향에 계신 할머니·할아버지를 비롯해 친척들이 함께 참가하는 등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풍성한 추석 연휴의 시작을 맞이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스테이 예매는 네이버에서 '태권스테이' 검색 후 할 수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